

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

1. 기본정보

이름	김나*	학번	
파견국가	필리핀	파견도시	수빅
파견대학	필리핀대학마닐라(UPM)	기간	2016. 6. 25(토) ~ 7. 23(토)

2. 파견대학, 수업 및 Activity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수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기숙사가 생각한 것 치고는 좋았습니다! 3명이 룸메이트인 시스템이라서 심심할 틈 없었구요. 다 좋긴하나 벌레가 정말 많다는 게 굳이 꼽자면 단점입니다. 한국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곤충들이랑 도마뱀이 매일매일을 괴롭혔어요.ㅠㅠ 도마뱀이 정말 많아서 가끔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이룬적이 많아요. 벌레 많은 것 빼고는 정말 좋았고 만족합니다. 수영장이 있으니 수영복 가져가시면 좋을듯해요.
수업	<p>수업은 3시간 1:1수업, 5시간 그룹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 처음에는 1:1 3시간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기다려지고 기대되는 수업이었습니다. 많은 후기들 보면 티쳐들 선물 준비해가라고 하는데 정말 꼭 준비해가세요. 저는 많이는 준비해가지 않아서 후회하는데 마지막에 헤어질 땐 정말 많이 아쉽고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. 선생님들도 모두 좋은 분이시고 어눌한 발음이나 어색한 문법들도 하나하나 다 잡아주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선생님들 모두 선생님들만의 커리어를 갖고 계셔서 모르는 걸 질문하면 정말 반갑게 대답해주셔요.</p> <p>결석에 대해서는 조금 뻣세지만 아픈 경우 이해해 주십니다. 이렇게 아파서 빠져도 나중에는 그냥 빠지지 말걸.. 하고 후회되더라고요.ㅋㅋ</p> <p>1:1수업이 정말 많이 도움된 것 같습니다. 외국인에 대한 공포증도 많이 없어졌구요.</p>
Activity	저희는 다른 후기에서완 좀 다르게 Activity에 조금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습니다. 저희는 날씨가 좋지 않아서 단체 액티비티는 많이 하지 않았어요. 까마얀비치와 요트타기를 했는데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.

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비가 정말 많이 오니 우산 꼭 챙겨가세요. 또 비올 때 젖어도 상관없는 신발도요! 덥긴 하지만 숙소랑 교실은 에어컨 덕에 시원하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감기 걸리거나 너무 센 에어컨 바람 때문에 추울 수 있으니 긴팔하나는 가져가는 걸 추천할게요.
안전	필리핀이 소매치기가 많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가방을 끌어안고 다녔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편하게 외출하고 다녔습니다. 필리핀 자체는 위험한 나라이지만 수빅은 정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이라 생각됩니다.
숙소	학교기숙사(✓) 홈스테이 () 외부 숙소() 기타() 파리채 같은 거 가져가시면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.ㅋㅋ 저희 방 같은 경우는 벌레가 정말 자주 들어왔습니다. 그때마다 룸메가 가져온 파리채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.
식사	학교식당(✓) 홈스테이 () 외부식당 () 기타() 주로 저희는 학교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처음에는 입맛에 안 맞았지만 적응이 되고 나서는 두 세 번은 받아먹었던 것 같아요. 전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라 처음엔 걱정했는데 나중엔 잘 먹었습니다. 한식이라 입맛 까다로운 분들도 적응되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종종 다른 음식이 그리워지면 멀지않은 곳에 한식당이 있으니 가시면 될듯해요.
교통	FB타고 다녔습니다. 13페소로 부담스럽진 않았어요.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:원

※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.

항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항공료,여행자보험,유학허가증,교재비,전기세,시설관리비,공항세	766,000	출국 전 사전 납부
식비(외식)	115,125	
생활비(휴지, 물)	8,944	
교통비(FB, 택시)	10,426	
Activity	48,880	
기타(기념품, 주말에 논 것)	120,000	
합계	303,375	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,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
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 꼭 챙겨가세요. 벌레도 많으니까 버무리같은건 필수입니다. 또
수수료가 엄청 많이 들어요.. 가서서 돈 뽑는 것 보다는 환전을 많이 해 가시는 걸 추천
해 드립니다. 또 티쳐들 선물 준비해 가시는 것도 추천드려요. 막상 처음에는 정들지 않
을 것 같은데 떠날 때 되면 많이 정들어서 선물살걸 후회합니다. 필리핀 현지에서는 그
닥 선물로 드릴게 없어요. 한국에서 사가시는거 추천드리고 비상약 꼭 챙기세요. 보통
지사제나 장염약 많이 가지고 오시는데 변비걸린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. 변비약이나
해열제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전자사전 가져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휴대폰에
전자사전 기능이 있긴 하지만 전자사전을 더 애용했습니다. 노트북도 짐되니까 작은걸
가져오시는 걸로 추천드려요.
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본인의 경험담, 느낀점,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.
우선 말하기는 정말 많이 도움됩니다. 대부분의 학생들이 외국인 공포증이 없어졌다고
말합니다. 정말 짧은 한 달이었지만 그만큼 많이 정들었고 떠나기 힘들었어요. 가신다면
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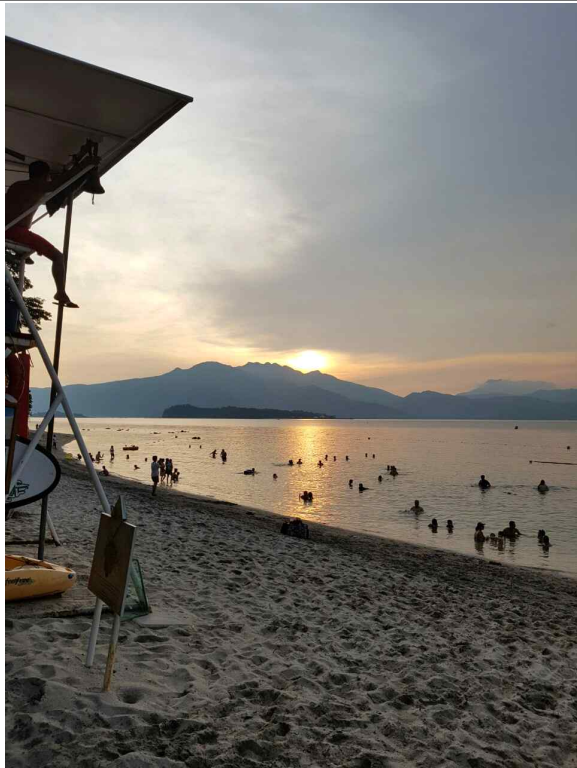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

숙소



요트



까마얀비치



고아원 1



마닐라투어



고아원 2